

“꽃 보다 불조심 먼저”... 잇따른 부주의 화재 ‘비상’

주말 광주·전남 산불 사고 지속 건조·거센 바람에 진압도 어려워 봄철 화재 대부분 방심하다 발생 지역 산림 연료수분량 10% 이하 대형 화재로 확대될 가능성 높아

봄으로 접어들고 있는 3월 광주·전남 지역에 건조 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지난 주말 동안 곳곳에서 산불 피해가 잇따랐다. 산림·소방당국은 봄철 산불은 대부분 담뱃불이나 쓰레기 소각 등의 부주의로 발생한다며, 입산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쓰레기 태우다...”

5일 산림청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2시13분께 순천시 월등면 망용리 일대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화재는 초속 10m 이상의 강한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확산했다. 산림당국은 ‘산불 2단계’를 발령하고 헬기 23대·장비 28대·진화대원 307명을 동원해 진화작업에 나섰다.

당국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 탓에 진화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화재 발생 5시간 18분 만에 가까스로 주불을 잡았다. 잔불까지 정리하는 데는 약 21시간이 걸렸다.

불은 인근 과수원 부산물 소각 과정에서 번진 것으로 파악됐다.

황천면 주민 서모(72) 씨는 “산에 하얀 연기가 구름 낀 것 마냥 자욱했다. 작년에도



광주시 시민안전실 직원과 안전모니터 회원들이 지난 4일 광주 북구 무등산국립공원 원호사 일원에서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김양배 기자

(울진) 큰 불로 이재민도 생기고 얼마나 문제였나”라고 반문하며 “TV에서만 보던 일이 발생하니 겁이 나 무서웠다. 큰일 없이 불이 잡혀 정말 다행이다”고 안도했다.

광주에서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다.

북부소방·북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11시47분께 북구 오치동 임야 인근 농경지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장비 10대와 대원 30명을 투입, 화재 신고 23분 만인 오후 12시10분께 주불을 진화시

켰다. 해당 화재는 인근에서 농작물 쓰레기를 소각하다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은 완전을 위해 잔불을 제거하는 도중 현장에 숨겨 있는 70대 여성 A씨를 발견했다. 당국은 쓰레기를 소각하던 A씨가 불이 발로 번지자 이를 끄려다 미처 피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했다.

북부경찰 관계자는 “건조·바람 날씨에 쓰레기 소각 불씨가 확대됐고, 불이 옮겨가는 것을 막으려던 A씨가 연기에 질식사해 화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건조한 날씨 당분간 계속

이런 봄철 화재는 최근 건조한 날씨에 강한 바람까지 이어지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1973년 이후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광주·전남 지역은 최근 산림 내 연료수분량이 10% 이하(연평균 30.4%)로 떨어지면서,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확률 또한 굉장히 높아졌다.

산림당국은 연료수분량이 10%대일 경우, 일 평균 산불 건수가 7건 이상 발생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 비 소식도 없

어 건조한 날씨는 한동안 지속될 예정이다.

이에 산림청은 지난달 말 일부 광주·전남 지역에 산불 경보 ‘주의 단계’를 설정했다. 봄철 남부 지역의 산불 발생 위험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0년간 광주·전남 산불 추이 통계를 보면, 광주는 산불 발생 34건 중 19건(55%)이 1월~5월에 발생했다. 전남은 무려 82%에 달했다.

산불 발생 원인으로는 △입산자 실화 △쓰레기 소각 △담뱃불 실화 △성묘객 실화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발생률은 농사가 시작되고 입산객이 늘어나는 봄에 집중 증가됐다. 특히, 사람이 조심하지 않아 발생한 부주의 화재가 많았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관계자는 “광주·전남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령된데다 국지적으로 강한 바람이 지속되고 있어, 영농부산물과 쓰레기 소각 등의 불씨가 대형 산불로 확산될 수 있다”며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가 적발될 시,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불 예방에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다.

전남도 산림보전과 관계자는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직접 끄려고 하지 말고 119나 산림청에 직접 신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광주 동부소방서는 지난달 28일 광주 북구 두암동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 의심 신고를 접수, 해당 현장에 출동해 투신 직전 시민을 구출해 냈다. 동부소방서 제공

광주지역 소방서 빠른 공조로 투신 직전 남성 구출

알코올중독·거동불편 신변 비관 등·북부소방 협업 19분만에 구조 “상담·도움 필요시 적극 신고를”

광주 지역 소방의 재빠른 공조로 투신 직전 위기 남성이 구출됐다.

5일 광주 동·북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4시49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 한 아파트에서 누군가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한다는 시민의 신고가 들어왔다.

북부소방은 곧바로 위급한 상황임을 인지, 해당 아파트에서 지리적으로 더 가까운 동부소방에 협조를 요청했다.

동부소방은 즉시 119구조대 팀을 해당 지점으로 출동시켰다. 약 10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구조팀은 곧장 추락 상황에 대비해 에어매트를 설치, 상담·회유 등을 진행할 정신건강센터 직원과 구조대를 사건 발생 장소로 급파시켰다.

소방대원들은 사건 현장 복도 쪽 창문을 뚫고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쇠창살을 절단, 신고 19분 만인 오후 5시8분

투신 직전 위기 남성 A씨를 무사 구출했다.

지체장애인이 A씨는 그간 알코올 중독·충간 소음·거동 불편 문제 등으로 지자체 기관에서 지속적인 상담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투신 소동도 이와 관련한 이유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를 담당하는 한석영 두암열린마을 상담센터 상담사는 “A씨는 평소 전동 휠체어로 이동하는데, 그간 불법 주·정차 등으로 거동에 큰 불편함을 겪어왔다”며 “오

랜 기간 민원이 처리되지 않자, 신변 비관 등을 호소하며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많이 안정된 상태”라고 전했다.

김홍규 동부소방서 119구조대 반장은 “담당 관할 지역이 아닌 곳에서 각 소방서와의 공조로 투신 위기 시민을 무사히 구하게 돼 몹시 기쁘다”며 “대부분 이런 극단적 상황은 ‘자신의 힘들음을 알아달라’는 등의 이유로 시도된다. 본인의 힘으로 이겨내기 힘든 일이 발생했을 때는 꼭 자살 예방센터·경찰·소방 등에 연락하길 바란다. 이 기관들은 언제나 시민을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정성현 기자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